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확대

정부,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

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청년두레 지원 등 3대 과제 추진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 문체부)는 지난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따라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생 ·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자리 · 주거 · 교육 · 생활 ·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20년 8월 5일 시행)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청년 고용과 일자리 증대를 위해 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고 '청년의 문화적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청년두레 지원 확대 등 총 3개 과제를 포함했다.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올해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와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개인 및 단체)은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단계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기업은 최대 50개 팀, 사업화 자금 약 500만 원을 지원한다. 초기창업기업은 25개 팀을 3년간 사업화자금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개 팀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시작한다. 향후 창업도약(창업 3년~7년) 및 창업 재도전 부문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내년부터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지원을 지역별로 확대한다.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린다. 올해 210명 양성, 50명 배치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336명 양성, 80명 배치를 지원한다.

'청년두레' 지원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숙박 · 식음 · 체험 등 관광 분야의 사업체(주민공동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영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상담(멘토링), 역량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두레'를 내년에 더욱 지원한다. 올해 56개 168명인데 내년에는 78개 234명으로 늘린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어느 세대도 겪은 적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세대를 불문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 및 체육 · 관광과,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청년이 많이 선호하고 종사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능력과 감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앞으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고 범정부적 청년 지원정책에도 활발하게 동참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 돕기

전북문화관광재단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기 위해 '소셜릴레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소셜릴레이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최초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면, 상품 수령 후 SNS를 통해 인증과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홍보하고, 차기 릴레이 주자로 3개 기관을 지명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직접 구매 및 전달하는 방식이다.

재단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부터 지명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고, 도내사회적경제기업인 '전북수제전통차협동조합'의 대추차를 구매해 다음 릴레이 주자인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경제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추석 문화생활 집에서 알차게'

정부, 추석 연휴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무료로
'집콕문화생활' 사이트서 국립 · 공공기관 콘텐츠 제공
네이버TV · 유튜브 등서 연극 · 오페라 · 뮤지컬 등 선보여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립 · 공공기관이 보유한 57개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연휴 이동 자제 권고에 따라 국민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비대면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 29개 국립 · 공공기관이 보유한 57개 문화콘텐츠 채널을 '집콕문화생활' 사이트(www.culture.go.kr/home)에서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28일부터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항목을 신설해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놀이, 집에서 즐기는 실내운동, 한국 고전영화 357선 등의 특집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한다.

문체부는 또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24일~10월24일) ▲온라인 한복상점(10일~12월31일) ▲온라인 미술주간(24일~10월11일) ▲문학주간(26일~11월30일) 등 비대면 행사를 연다.

네이버TV, 유튜브 등에선 국립기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비언어극 등도 특별 중계 · 방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미디어를 통해 방역수칙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는 추석연휴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제작 · 편성하고, 타 방송사에 동영상을 배포한다.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방송될 계획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선 통신사,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영상 안부인사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방송사는 또 공감 · 힐링형 다큐멘터리, 온 가족 대상 오락 프로그램, 집에서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특별편성한다. 유료방송사에선 영상프로그램(VOD) 쿠폰 · 할인 ·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 참여 '쉼' 백일장 공모전을 진행한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나에게 '쉼'의 의미를 주제로 한 시(시조)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따스아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에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재)전주문화재단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8일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선제적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선제적 개발

전주문화재단-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약 체결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은 지난 18일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선제적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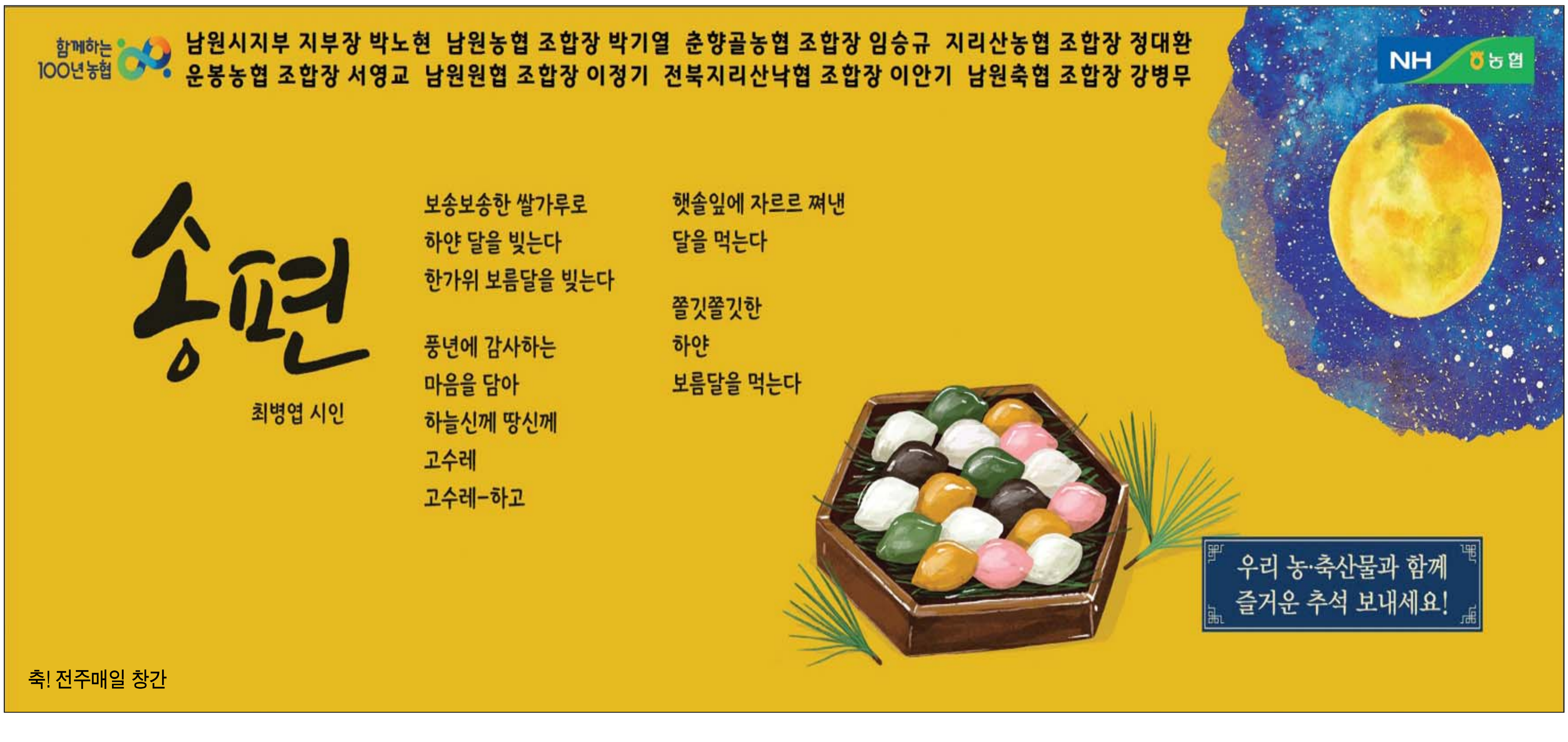
양 기관은 ICT기술과 기초예술의 융 · 복합 문화예술콘텐츠 생산 등 지역예술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과 ICT 기술의 융 · 복합을 통한 문화예술의 기록 · 복원 · 재현 · 창작 · 유통 등에 관련된 기술투자와 교육 ▲지역예술단체의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업컨설팅 지원 ▲지역문화예술인과 ICT기술 보유업체와의 협업 교류 지원 ▲문화예술분야 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책사업 발굴 및 공동 대응 등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자원과 기초예술인의 역량을 보유한 재단과 다양한 ICT 기술을 갖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협약을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문화예술콘텐츠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1~25일 '전북도 기록물 전시회'

전북도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전라북도 기록물 전시회를 연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기록물 전시회는 올해 실시한 기록물 수집공모전의 수상작과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청각 기록물 15점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기록물로는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익산 함열지역 상세지도', 1940년대 고창 무장국민학교 교원 및 학생 사진, 1974년 도정 사진기록집 등이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관찰사의 인사발령부인 '호남도 선생안'을 볼 수 있다. /유호상 기자